사회복지법인
초정노인복지재단
충북 청원군 내수읍 우산리 192-5 (363-935)
전화 : 043)213-7123 팩스 : 043)213-7117

충북사회복지

신문광고 문의
043) 234-0840~2
전국 4,500부 무료배포

제 200호 대표전화 043)234-0840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맞춤형 복지
건강한 충북
행복한 도민

충청북도가 환하게 웃어요

사회복지 한마음 대축제
9월 24일 괴산서 성료
보건복지부 장관상등
유공 50여명 표창 수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가 공동주관한 2015 충청북도 사회복지 한마음 대축제가 9월 24일 11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에서 사회복지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충청북도 사회복지 한마음 대축제가 9월 24일 11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에서 사회복지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 근무자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가 공동주관하고 충청북도,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제16회 충청북도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제8회 충북복지박람회, 제2회 충북나눔대축제 등이 부대행사로 동시 개최되어 명실상부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청주시 사회복지 7급 주견종 씨를 비롯한 영예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4명, 충청북도지사 표창 17명, 충청북도의회 의장 표창 12명,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표창 등 50여명의 유공자들이 그동안 충북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온 공로로 사회복지 시설, 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기념식에 이어 맞춤형 복지로 건강한 충북 행복한 도민 시대를 열어갑니다 라는 주제로 사회복지 비전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제8회 충청북도복지박람회 및 제2회 충청북도나눔대축제가 진행됐다.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는 이날 격려사에서 사랑하는 사회복지 가족 모두는 그동안 헌신과 사명감으로 일해 왔으며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기댈 수 있는 희망이자 등불 라고 말하며 그동안의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제는 사회복지가 사회복지인들의 헌신과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같은 선진 복지모델을 설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등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가자 고 강조했다.

맞춤형 복지 건강한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충청북도 사회복지 한마음 대축제는 정신건강, 신체건강, 재능건강, 생활건강 등 4가지 테마별 체험 부스 20여개를 함께 운영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퀴즈, 스트레스 검사, 단호박 효소만들기 체험, 기초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물론 유기농엑스포장을 찾은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심의보 회장은 2015 충청북도 사회복지 한마음 대축제 가 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와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행사는 제16회 충청북도사회복지대회 와 제8회 충청북도복지박람회 , 그리고 제2회 충청북도나눔대축제 가 동시에 개최되어 사회복지 근무자들의 화합의 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맞춤형 복지로 건강한 충북 행복한 도민 시대를 열어가는 한걸음이 되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행사를 공동 주관한 이화정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장은 오늘 행사가 우리 충청북도 사회복지 가족 화합의 한마당과 함께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전파하고, 복지정보를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또한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가 열심히 준비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도 꼭 성공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번 200호는 2015년 사회복지 주요 뉴스 종합편으로 제작됐습니다

기초연금 이력관리제 내년 도입

탈락자도 매년 이력조사
자격조건 부합하면 지급
올1년 수혜자 7만명 추산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더라도 추후 자격조건에 부합할 경우 정부로부터 안내를 받게 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다. 탈락 후 5년 동안 매년 이력조사와 함께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부는 수급 조건에 부합할 경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함을 공지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 구조다. 과거에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미치지 못해 탈락했더라도 추후 선정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노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들이 총 32만명인데, 이 중 올해 선정기준액에 새롭게 부합되는 노인은 7만명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87만원에서 93만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력관리제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자활연수원 충주 안림동에 '새둥지'

질 높은 자활 사회 교육 기대

4월 3일 충주시 안림동 일원에서 한국자활연수원 개원식이 열렸다.

충주시 안림동에 둥지를 튼 한국자활연수원이 4월 3일 오전 개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10시 개원식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이종배 국회의원, 정정순충북도행정부지사, 조길형 충주시장,이언구충북도의회의장,윤범로충주시의회의장, 류호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회장,이심 대한노인회장,오상훈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등 기관단체장과 자활 관련 기관 관계자, 안림동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문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자활참여자 및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맡게 될 연수시설이 충주에 건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며 연수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강조했다.

2012년 1월 법무부 소관의 옛 충주소년원 부지를 이관받아 건립된 한국자활연수원은 2만9천800㎡의 부지에 26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9천996㎡) 규모의 교육관, 생활관, 운동장 등을 조성했고, 하루 최대 282명이 숙박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다.

이 연수원은 자활과 사회 서비스 분야 담당 공무원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자활분야 참여자, 종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7개 과정 4천140명을 교육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17개 과정 1천86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추위 녹인 김치, 사랑의 온도는 '핫'

심의보 충북협의회장 등
관계자 250명여명 참가
김장김치 3만6000kg 담가
저소득 3600세대에 전달

심의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 등 관계자 250여명이 11월 10일 농협충북유통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갖고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 이하 충사협)는 충북농협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11월 10일 농협충북유통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의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 임형수 충북농협본부장, 이명식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비롯한 농협봉사단체인 고향주부모임과 농가주부모임회원, 공동모금회봉사자,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봉사자 등 250명이 참가했다.

봉사자들은 이날 담근 김장김치 3만6000kg을 홀몸노인, 저소득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충북도내 전지역 3600세대에 직접 전달했다.

임형수 충북농협본부장은 판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배추농가도 돕고,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에게도 작지만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길 바란다 며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도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5월부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14.11.4)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도 5월 6일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간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 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 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자녀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는 제공이 제한된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우선 관할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이하 확인원) 을 발급받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 를 제출해야 한다.

보훈관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상이등급 판정내역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표를 송부한다.

보훈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받고 동의서를 제출하고 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된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시행 초기 장애인 등록 신청이 집중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가 최장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복지사각 저소득층 찾아요"

충북도, 빈곤층 발굴 지원 확대
서류제출 늦어도 긴급지원 가능

충북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동절기를 맞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16. 3월까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언제든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상담?접수가 가능하며, 증빙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8시간 이내 생계비 등을 우선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총 6,253가구에(생계지원 3,848, 의료지원 721, 주거지원 396, 교육 및 연료?장제비 등 1,288) 37억원을 지원하여, 전년대비 지원가구수 191%, 지원금액 143%를 확대 지원하였다.

특히, 6월부터는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 을 실시하여 총 242가구 192백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견과 지원으로 도민들의 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 단전 단수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탈락 가구, 주택임차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 등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군별 조례 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저소득층의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 및 연료비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월 12일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찾고 나누는 소중한 이웃! 365! 두드림 선포식에서 이승훈 청주시장과 내빈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찾고 나누는 소중한 이웃! 365!두드림 선포'

청주시-청주복지재단 선포식 열고 민관 체계 구축

청주시와 청주복지재단이 2월 12일 365 두드림 선포식을 열고 안정적인 민관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이 날 선포식에는 읍면동 민관복지협의체 관계자들과 민간 네트워크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찾고 나누는 소중한 이웃! 365 두드림 은 읍면동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민관 복지전달체계 기반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복지 브랜드다.

선포식에서는 참석자들은 이승훈 청주시장의 선창으로 참여의 문화, 관심의 문화, 화합의 문화 를 외치면서 촘촘한 복지 실천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올해는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기반을 확대하고 소통, 채움, 나눔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면서 민관 복지협의체가 힘을 모아 365일 매일같이 행복의 두드림을 울리자 고 당부했다.

시와 재단은 그동안 읍면동 민관 복지협의체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청주복지자원지도 통(通) 발간, 읍면동 인적 안전망 구축 실천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민관복지협의체 우수 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등의 365 두드림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전달 체계 개선, 위기계층의 구체적 복지수요 측정, 복지체감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복지정책 평가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는 강서1동, 성화개신죽림동과 복대1동이 각각 읍면동 민관 복지협의체 활성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청주시 고용복지센터 개소

8월 12일 14시부터 사창동에 소재한 청주고용센터 2층에서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한기수 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장, 차태환 청주시기업인협의회장 등 참여기관, 사용자, 유관기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하는 청주고용복지+센터는 청주시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이 주축이 되어 총 6개 기관 단체에서 36명이 참여하게 된다.

참여기관은 청주시 복지정책과,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민금융지원센터, 청주고용센터이다.

그간 일자리와 복지, 금융서비스 기관들이 여러 곳에 있어 일일이 찾아다니며 업무처리 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이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복지, 금융서비스 기관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자는 것이 고용복지+센터를 만들게 된 주된 목적이다.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은 참여기관 간 상호 협조를 통해 주민들의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고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3월 11일 개최한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에서 참여자 대표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퇴직전문인력 재능기부 활성화

충사협, 1회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인생이모작 평가 및 발대식 개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 이하 협의회)는 3월 11일 퇴직전문인력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평가 및 발대식 을 청주시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참여자 400여명이 참석한 이 날 행사에는 참여자 대표 선서 및 우수사례 공모시상, 효과성연구발표 와 안충준장군(전 UN 평화유지군 사령관)의 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이시종 지사는 퇴직한 전문인력들이 충북발전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충북경제 전국 4% 달성에 전 도민이 힘을 합치자 고 강조했다.

충청북도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들이 사 회 문 화 등 각 분야에서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충북사회복지신문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자문위원장으로서 활동중인 김춘길 주필은 이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사회봉사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 이라며 창조적 신노인 사회봉사활동으로서 충북이 전국에서 선도적인 사업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이 사업 참가자 전원이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이 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효과성 연구조사를 발표한 김준환 교수(충청대학교)는 사업 취지에 맞게 전문가가 참여하여 재능을 기부하면서 사회적 보람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는 등 긍정적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 발표했다. 개선사항으로는 참여기관의 편중성해소 및 활동시간과 활동일 수 증가, 운영기관 관리지원 등을 거론했다.

심의보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참여자의 지역적 편중성 해소 및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관 모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하고 참여자들의 성취감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인 만큼 중장년 은퇴자들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인생이모작 사업은 참여자 600여명, 참여기관 140여개소가 신청했으며, 심의를 통해 선정된 참여자의 활동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노인복지관 건립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다목적 휴게실 등 구비

청주시가 어르신들의 활동적인 노년의 삶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관 건립에 나섰다.

청주시는 오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97억 원을 들여 서원구 산남동에 서원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

현재 시는 상당구 2곳(수동, 지북동), 흥덕구 1곳(가경동), 청원구 1곳(내덕동) 등 4개의 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이나 서원구 지역에는 노인복지관 없어 남부지역 노인들은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편했다.

서원노인복지관은 산남동 1086번지 일원 4,646㎡에 건축면적 3,300㎡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다목적실, 휴게실, 자원봉사실, 강의실, 회의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현재 해당 토지를 LH공사와 부지교환을 완료한 상태이며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가 2017년 준공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인프라 조성으로 활동적인 노년의 삶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복지관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향상돼 노인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 보건소가 매월 둘째 수요일 구세군기초푸드뱅크에 의뢰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다.

행복배달 건강지킴이사업 '호응'

청원구보건소 식료품 전달

청주시 청원구 보건소가 매월 둘째 수요일 구세군기초푸드뱅크에 의뢰해 식료품을 전달, 행복을 배달하는 건강지킴이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구 보건소는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중 경제적 문제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25가구를 선정했다.

김은하 소장은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정기적인 방문건강관리와 다양한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환하게 웃는 대상자들을 볼 때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고 말했다.

청원구 보건소는 지난해 2000여건이 넘는 다양한 자원을 연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뿐 아니라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활발히 진행 할 계획이다.

"먼 자식보다 이웃 행복지키미가 좋아요"

9988 행복지키미 한마당 진천 종합사회복지관서 개최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9988 행복지키미 한마당 행사가 11월 25일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사업성과를 평가 홍보하고, 수범사례 발굴 및 유공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충청북도지사를 비롯하여 도내 12개 노인회장 및 32개 사업수행기관장과 행복지키미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성과보고, 유공자 표창(20명), 우수사례 발표(5명)순으로 진행됐다.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9988 행복지키미 한마당 행사가 11월 25일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돼 유공자 표창과 사업성과보고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전체 수행기관(32개소)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기관으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 우수기관으로 진천시니어클럽 , 진천군 노인복지관 을 표창 선정, 수행기관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같은 마을 7명의 노인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생활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청주 수동시니어클럽 소재원(73세, 남) 지키미를 비롯한 14명의 지키미가 도지사 표창을 받는 등 많은 분야에서 묵묵히 지키미 업무를 수행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사업수행기관의 대표 수범사례가 책자로 발간 배부됐다. 행복지키미의 올해 1년간의 가슴 따뜻한 수범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수사례 발표에 나선 증평군 행복지키미 김계영(80세 여) 씨는 같은 아파트 독거노인이면서 뇌졸중을 앓고 있는 김 모(81세 여) 씨를 매일 활동보조 해준 사연과, 수혜 노인이 직접 쓴 감사편지를 소개하면서 멀리 사는 자식이나 친척보다 가까이서 지켜주고 보살펴주면서 이웃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고 말했다.

또한 옥천군 행복지키미 유인숙(69세 여), 이인숙(69세 여) 씨는 수혜대상자인 김 모(82세 여) 씨를 방문했을 때 김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병원 후송 후 서울에 사는 자식을 대신해 응급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연 등을 소개했다.

이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며, 앞으로도 힘과 체력이 다할 때까지 마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 고 말했다.

충청북도지사는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이 건강한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다 고 밝히면서 충북을 넘어 대한 민국 대표 노인복지 성공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가 7월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본격 운행된다.

"행복 싣고 신나게 달려요" 시골마을 행복택시 7월 운행

민선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시골마을 행복택시 가 7월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본격 운행된다.

충청북도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시골마을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골마을 행복택시 첫 운행을 알리는 발대식을 7월 2일 보은군 회인면 갈티리마을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보은군수, 주요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운수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은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라는 정부3.0의 8대 핵심과제중 하나다. 그동안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병원진료나 시장이용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온 오 지 벽 지 마을 어르신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고 편리한 택시를 시내버스 요금수준으로 이용하여 함께하는 도정을 구현코자 마련됐다. 민선6기 이시종지사를 비롯해 보은, 충주, 옥천, 영동, 음성, 단양군 등 도내 6개 시장 군수의 공약사업이다.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 184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총 60억의 사업비를 지원, 우선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는 11개 시군 100개 마을에 대해 시범운행을 실시한 후 시범운행 결과를 분석 보완하여 연차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2016년 150개, 2017~2018년 184개)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주민의 요청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는 수요자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로 마을에서 읍면소재지 또는 재래시장까지 1일 3회 정도 운행할 예정이다. 운행요금은 주민은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300원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운행비용은 도와 시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청주, 노인 · 장애인 행복도시로

청주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장애인에 대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전년대비 16% 증가한 228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한 청주 만들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활기찬 노인 위한 지원 사업 확대

시는 노년기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를 통한 자존감 증진을 위해 1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088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명칭을 노인 일자리 사업 에서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으로 바꾸고 스쿨존 지킴이와 학교급식도우미, 9988행복지키미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한다.

독거노인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을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실버행복드리미(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노인자살자가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안전한 노년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1,315억 원, 19개 노인대학에 4억 원을 지원하고 97억 원을 들여 서원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지원 사업 확대 시행

시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사업과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을 지급을 통해 출산을 장려할 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행정도우미 60명, 장애인복지 일자리 123명,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안마사 파견 사업 8명 등 총 19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증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작년보다 29억 원이 늘어난 155억여 원의 사업비로 120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가사활동, 동행,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개관한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올해부터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내 장애인들의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 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발맞춰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효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해 행복한 어르신, 당당한 장애인, 함께 하는 사람 중심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심 의 보 편집위원장 박 상 준 편집고문 김 춘 길
(361-8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pcsww@chol.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보은군장애인회관 준공 · 입주식 개최

군비 등 예산 23억원 투입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갖춰

보은군장애인회관이 준공돼 10월 30일 입주식을 가졌다.

입주식에는 정상혁 군수를 비롯해 지역주민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보은군장애인회관 입주를 축하했다.

군은 장애인 편의증진 및 복지 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옛 그랜드웨딩홀 건물을 매입하고, 같은 해 6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 8월17일 설계를 완료했다.

보은읍 죽전리에 위치한 기존 장애인회관은 2008년에 군비 구입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군은 2014년 지난 노후된 건물로 낡고 비좁은 장애인회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장애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국 도비 6억5천6000만원, 군비 16억4천8000만원 등 총 23억원이 투입된 보은군장애인회관은 부지면적 980㎡, 전체면적 1천437㎡ 규모다.

1층 장애인보호작업장, 2층 장애인연합회,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사무실, 3층 회의실, 4층 체력단련실이 갖춰져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련됐다.

군은 새로운 장애인회관의 입주로 각 장애인시설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장애인의 만남 스 통 화 합 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은지역에 장애인회관이 준공됐다. 10월 30일 준공식에 앞서 정상혁 군수와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들이 준공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군수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을 더욱해 군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의 해심공간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영동군,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영동군이 꿈부의 2014년도 전국 평가에서 드림스타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 중인 전국 9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중복도내에서 유일하게 기관표창을 받는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단과 현장위원단이 심사한 이번 평가는 기본구성, 통합사례관리, 사비스운영, 자원개발 및 연계, 만족도, 홍보 등 6개 분야의 33개 지표에 대해 현장점검, 사례심층 및 실적점검을 통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영동군은 사례관리 교육 및 컨설팅 강화, 통합정보시스템 산출 지표의 배점 개선, 현장위원 심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한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든 대상자들이 누락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해 사례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옥천군,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선정

옥천군이 대한상공회의소 , 동아일보 주최 2015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에 선정됐다.

군은 일자리창출 부문 에서 기업유치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이 지속적 추진 노력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농어촌의 농외소득 증대 및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지정(재)기업 산업단지에 이어 제2의일자기 산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의로기기 농공단지 7경매73%, 창산산업단지 내 9업체를 분양(79/5개)해 5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62명을 포함한 지스자속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분야에 지난해 1천77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다문화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결혼이민여성의 소외확을 위해 글로벌 마시기기 위해 손즈게 사업에 10명을 고용했다.

군 경제정책실에 일자리센터를 마련해 취업알선, 일자리 발굴, 동행면접 등을 통해 지난해 34명을 취업을 시키는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 6곳에 7명, 마을기업 4곳에 4명의 기명을 육성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하고 있다.

단양군 위기가구 발굴 '복지 이장제' 추진

단양군이 공공이혁은 불분 지역주민과 이장을 복지업무와 동반자로 활용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부터 이장이 주민을 직접 방문해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이장제 를 추진하고 있다.

단양군이 지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 면 의 인적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군은 그동안 인적 안전망이 부족하다고 판단, 공공인력과 읍면지역주민과 이장을 복지업무의 동반자로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이장이 주민을 직접 방문해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이장제 를 개설했다.

정책을 위해서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를 개정했다. 또한 이 장부서 설치 등은 군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안전을 기하고 있다 네 앞으로도 지방분권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을 실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증평 '그물망 복지 정책' 전국이 주목

차별화된 내실 있는 복지정책 추진으로 증평군 주민복지실상을 연재읜이 주목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 분야 예산 320억원 대비, 6.5%가 증가한 341억원의 예산을 노 인 장 애 인 저 소 득 층 에 중 점 투입할 계획으로 이는 군 전체 예산의 19.36%를 차지한다.

군은 증애읍 미래, 삼기 출 증 평 등 소외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그물망 복지 실현을 위해 3기 증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국가유공자에게 5만원씩 지급되던 천연멘에수당을 8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훈가족 예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또 경로당 설치 및 보수 5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2억1600만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9986행복나누미 사업에 1억 9900만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설치된 지역장애인편의시설 기초 지원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확산하고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홈보,교육사업 등을 실시해 지역 내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취업센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취미,직업교육과 취업박람회, 전산교육, 동행면접 등 기업과 여성취업 희망자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발굴해도 앞장서 민관 협력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은 이장, 방문건강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의 긴밀한 협조와 긴급복지지원팀에의 의뢰으로 관내에 단 한 가구의 위기가정도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 및 시행결과 평가 전국 우수자치단체 선정 등 각종 평가와 공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국 최고의 삶기 좋은 지자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연재은 복지실장은 군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안전을 기하고 있다 네 앞으로도 지방분권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증평을 실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주)천보 민관협력금 3000만원 기탁

(주)천보대표 이상용)가 2월 7일 충북 충주시청을 방문해 따뜻하고 희망찬 충주만들기 일환으로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충주사랑 행복나눔 사업에 3000만원을 기탁했다.

충주사랑행복나눔은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자 립 자 활의지를 지닌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삶의 희망찬을 더해줄 주기원에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충주시 해이다.

충주 주택금 당우리 증원산업단지에 위치한 원보스 산업 전 본이에 사옹되는 중간원료와 기초원화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지난 2013년도에 6백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지난해 2500만원, 올해 3000만원 등 현재까지 총 61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지난 1월에 소재지인 주덕읍과 2개의 면지역에 마을기금 100만원씩을 지정기탁하기도 했다.

이상용 대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충주시와 더불어 따뜻하고 희망찬 충주 만들기 사업인 충주사랑행복나눔 사업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 고 말했다.

[주]천보 이상용 대표가 2월 충주시청을 방문해 조길형 시장에게 충 주 사 랑 행복나눔 사업에 써달라며 30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보은에 전국 첫 '자활작업장'

보은군 내부면에 전국 최초의 내부장애인 자활작업장이 들어선다. (사)충청북도내부장애인협회는 내부장애인협회 자립과 자활을 통한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3년 옛 내외초 부지를 임대해 부설로 충청푸른어울림평생교육원을 만들어 작업장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다음달 중순 개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사)충북내부장애인협회는 옛 내외초 부지를 임대해 경작학기 이래의을 권고 있는 내부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직업교육 장소를 마련해 봄꽃, 의상디자인, 컴퓨터 및 IT, 전통도예과, 음악, 원예, 전통음식 취미생활반을 개설해 교육 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단과 현장위원단이 심사한 이번 평가는 기본구성, 통합사례관리, 사비스운영, 자원개발 및 연계, 만족도, 홍보 등 6개 분야의 33개 지표에 대해 현장점검, 사례심층 및 실적점검을 통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영동군은 사례관리 교육 및 컨설팅 강화, 통합정보시스템 산출 지표의 배점 개선, 현장위원 심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한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든 대상자들이 누락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해 사례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동군,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영동군이 꿈부의 2014년도 전국 평가에서 드림스타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 중인 전국 9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중복도내에서 유일하게 기관표창을 받는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단과 현장위원단이 심사한 이번 평가는 기본구성, 통합사례관리, 사비스운영, 자원개발 및 연계, 만족도, 홍보 등 6개 분야의 33개 지표에 대해 현장점검, 사례심층 및 실적점검을 통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영동군은 사례관리 교육 및 컨설팅 강화, 통합정보시스템 산출 지표의 배점 개선, 현장위원 심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한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든 대상자들이 누락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해 사례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옥천군,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선정

옥천군이 대한상공회의소 , 동아일보 주최 2015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에 선정됐다.

군은 일자리창출 부문 에서 기업유치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이 지속적 추진 노력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농어촌의 농외소득 증대 및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지정(재)기업 산업단지에 이어 제2의일자기 산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1의로기기 농공단지 7경매73%, 창산산업단지 내 9업체를 분양(79/5개)해 5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62명을 포함한 지스자속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분야에 지난해 1천77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다문화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결혼이민여성의 소외확을 위해 글로벌 마시기기 위해 손즈게 사업에 10명을 고용했다.

군 경제정책실에 일자리센터를 마련해 취업알선, 일자리 발굴, 동행면접 등을 통해 지난해 34명을 취업을 시키는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 6곳에 7명, 마을기업 4곳에 4명의 기명을 육성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하고 있다.

단양군 위기가구 발굴 '복지 이장제' 추진

단양군이 공공이혁은 불분 지역주민과 이장을 복지업무와 동반자로 활용하기로 했다. 군은 올해부터 이장이 주민을 직접 방문해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이장제 를 추진하고 있다.

단양군이 지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 면 의 인적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군은 그동안 인적 안전망이 부족하다고 판단, 공공인력과 읍면지역주민과 이장을 복지업무의 동반자로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이장이 주민을 직접 방문해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이장제 를 개설했다.

정책을 위해서 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지급 조례 를 개정했다. 또한 이 장부서 설치 등은 군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안전을 기하고 있다 네 앞으로도 지방분권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을 실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증평 '그물망 복지 정책' 전국이 주목

차별화된 내실 있는 복지정책 추진으로 증평군 주민복지실상을 연재읜이 주목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 분야 예산 320억원 대비, 6.5%가 증가한 341억원의 예산을 노 인 장 애 인 저 소 득 층 에 중 점 투입할 계획으로 이는 군 전체 예산의 19.36%를 차지한다.

군은 증애읍 미래, 삼기 출 증 평 등 소외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그물망 복지 실현을 위해 3기 증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국가유공자에게 5만원씩 지급되던 천연멘에수당을 8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훈가족 예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또 경로당 설치 및 보수 5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2억1600만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9986행복나누미 사업에 1억 9900만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설치된 지역장애인편의시설 기초 지원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확산하고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홈보,교육사업 등을 실시해 지역 내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취업센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취미,직업교육과 취업박람회, 전산교육, 동행면접 등 기업과 여성취업 희망자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발굴해도 앞장서 민관 협력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은 이장, 방문건강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의 긴밀한 협조와 긴급복지지원팀에의 의뢰으로 관내에 단 한 가구의 위기가정도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 및 시행결과 평가 전국 우수자치단체 선정 등 각종 평가와 공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국 최고의 삶기 좋은 지자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연재은 복지실장은 군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안전을 기하고 있다 네 앞으로도 지방분권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증평을 실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주)천보 민관협력금 3000만원 기탁

(주)천보대표 이상용)가 2월 7일 충북 충주시청을 방문해 따뜻하고 희망찬 충주만들기 일환으로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충주사랑 행복나눔 사업에 3000만원을 기탁했다.

충주사랑행복나눔은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자 립 자 활의지를 지닌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삶의 희망찬을 더해줄 주기원에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충주시 해이다.

충주 주택금 당우리 증원산업단지에 위치한 원보스 산업 전 본이에 사옹되는 중간원료와 기초원화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지난 2013년도에 6백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지난해 2500만원, 올해 3000만원 등 현재까지 총 61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지난 1월에 소재지인 주덕읍과 2개의 면지역에 마을기금 100만원씩을 지정기탁하기도 했다.

이상용 대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충주시와 더불어 따뜻하고 희망찬 충주 만들기 사업인 충주사랑행복나눔 사업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 고 말했다.

[주]천보 이상용 대표가 2월 충주시청을 방문해 조길형 시장에게 충 주 사 랑 행복나눔 사업에 써달라며 30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보은에 전국 첫 '자활작업장'

보은군 내부면에 전국 최초의 내부장애인 자활작업장이 들어선다. (사)충청북도내부장애인협회는 내부장애인협회 자립과 자활을 통한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3년 옛 내외초 부지를 임대해 부설로 충청푸른어울림평생교육원을 만들어 작업장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다음달 중순 개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사)충북내부장애인협회는 옛 내외초 부지를 임대해 경작학기 이래의을 권고 있는 내부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직업교육 장소를 마련해 봄꽃, 의상디자인, 컴퓨터 및 IT, 전통도예과, 음악, 원예, 전통음식 취미생활반을 개설해 교육 강당은 충북도내부장애인협회 강은 충청푸른어울림평생교육원 은 내부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을 위 한 일종의 고가치가치의 장임회하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지난 2013년도에 6백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지난해 2500만원, 올해 3000만원 등 현재까지 총 61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지난 1월에 소재지인 주덕읍과 2개의 면지역에 마을기금 100만원씩을 지정기탁하기도 했다.

이상용 대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충주시와 더불어 따뜻하고 희망찬 충주 만들기 사업인 충주사랑행복나눔 사업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 고 말했다.

[주]천보 이상용 대표가 2월 충주시청을 방문해 조길형 시장에게 충 주 사 랑 행복나눔 사업에 써달라며 30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보험

SSN 충청북도복지협의회 공식 업무협약 생명보험사

1. 사회복지법인 기부 프로세스 컨설팅
아름다운 사후기부 문화 정착 캠페인
사회복지법인 지속 발전 가능성 컨설팅

2. 알아야 면장하지!!!
"지피지기 백전불태" – 내 보장 알아보기
"Bravo My Life!!" – 꼭 필요한 재무설계

3. 보험소비를 통한 자기 명의 기부
필요한 보장! 연금! 확인을 통한 보험 소비시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내 이름으로 기부(기관지정 가능)

사회복지협의회 담당FC 서경희
(문의: 010-9566-4575)

(주)익성 "따뜻한 겨울 만들어요"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1000만원 상당의 흡습제 후원

주식회사 익성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시가 1,000만원 상당의 흡습제를 후원하는 사랑의 물품 전달식 을 가졌다.

2월 9일 오후 2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주식회사 익성 이봉지 대표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박병준 수석부회장 및 흡습제 배분을 담당할 시 군 종은이웃을 담당자, 푸드뱅크 담당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식회사 익성이 후원한 흡습제는 겨울에는 방한제로 사용 가능하고 여름에는 제습제의 역할을 하여 부직방법도 간편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정이나 농가에 배분될 예정이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의 지원에 큰 도움을 주신 주식회사 익성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앞장서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다 고 말했다.

주식회사 익성 이봉지 대표는 흡음재 후원시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되길 바랐는데, 푸드뱅크의 좋은사업 팀을 통해 저소득가정 및 농가에 전달된다고 하니 이보 인원 소외계층이 한층 더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주식회사 익성은 2월 9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청주지역 불우이웃 2천만원 지원

일화대표 이성관(좌)은 28일 청주시청 접견실에서 청원생명(최명호)에 성료 사랑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일화, 청원생명 성료기금 전달

일화(대표 이성관)는 28일 청주시청 접견실에서 청원생명(최명호)에 성료 사랑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일화는 청주시 공동브랜드인 청원생명 브랜드 사용료 2000만원을 청주시 관내 불우이웃 등기 기금으로 전달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금을 전달한 일화는 청원생명 브랜드를 활용한 청원생명 일화생수를 판매한 수익금을 청주시에 전달해오고 있다.

일화 이성관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 수익을 전달하게 되어 뜻이 남다르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발전을 끊구하겠다 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성관 대표이사, 신대근 전무이사, 이승훈 청주시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일화는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 구리, 충북 청주, 강원 춘천, 충남 금산지역을 중심으로 주변한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원 전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기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는 2014년 사이버교육센터 수료생 수료자 일리지 적립을 통한 배중기부터를 실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배중기부터란 배움을 통해 기부를 실천하는 것으로 교육생이 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을 수료할 때마다 교육생 1명당 10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연말 모든 교육생의 누적 적립마일을 환산으로 환산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은 올해 7만6600명 이상이 수료해 적립금 액수만 5000만 원을 초과 달성, 당초 계획한 500만 원 전액을 기부하게 됐다.

인력개발원 원호영 원장은 사이버과정 교육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만든히 개인의 자기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에게도 음을 주는 뜻깊은 의미로 이어져 교육 그이상의 의미가 있다 라고 배움기부제의 취지를 밝혔다.

올해 첫 번째 전사학교 탄생
청주 가경초 도내 15번째 협약

2015년도 최종이자 충북 도내 15번째 희망나눔 전사학교 협약식이 지난 주(5일) 청주 가경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회장 성경원)와 청주 가경초등학교교장 김재득)은 10월 19일를 가경초등학교에서 2015년도 첫 희망나눔 전사학교 협약식을 가졌다.

이 날 협약식에는 성경원 충북적십자사 회장, 김재득 가경초등학교장, 18명의 가경초등학교 희망나눔 전사들이 참석했다.

성경원 충북적십자사 회장은 "음은을 아껴 친구들을 돕는 희망전사들이 자랑스럽다. 나눔을 실천하려는 전사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전사들의 참기 후원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재득 가경초등학교장은 "적십자와 함께 한 사랑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진정한 인성교육의 시간 이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천사학교 캠페인에 참여해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야간족족 동서남북 건고 건강 챙기고"

충주시보건소 운동실천 조성

충주시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운동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4월 6일 화요일부터 야간걷기 개강식 을 열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탑골공원 주변과 충원대로 일원에서 야간 족족(足足) 동서남북 걷기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야간 걷기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접근성이 용이한 충원순동장과 대가미체육공원, 호암생태공원, 충주공고 운동장, 충주세계무술공원 등 5곳의 생활권 주변을 활용해 월 수 금 요일 주 3회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운영했다.

올해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속에 프로그램 운영장소에 무술공원을 추가해 모집했으며, 모두 120명의 시민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다. 12주 동안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걷기뿐만 아니라 시민 스스로 식습관과 운동 지를 선정해 지속적인 건강상담 관리 및 협력권사를 만들 수 있도록 4년 동안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우선은 충주시 건강증진팀장은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을 위해 수료생들을 걷기운동의 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충주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운동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6일 오후6시 호암체육관에서 야간걷기 개강식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야간 족족(足足) 동서남북 걷기프로그램 을 운영했다.

진천군, 하하체조 전 군민 보급

4월부터 집중 교육

진천군보건소(소장 이재은)가 올해 도내 최초로 개발한 하하체조를 4월부터 집중 보급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원청사 강사 10명, 체조모우미 50명을 보건소에 등록하고 3월에 하하체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청사자원은 4월부터 주 3회(화, 목, 금)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갑거리 야외 무대에서 하하체조를 선보인다.

김기연 보건소장은 "진천읍이 자원봉사자원을 따라 하하체조를 배울 수 있고, 스마트폰에 저장 및 SNS를 통해 하하체조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월부터 자원봉사자 들을 통해 갑거리 야외무대 하하 체조 공연 및 계발과 홍보를 실시. 전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박지인 군 보건소 가족건강팀장은 하하체조를 통해 음과 마음도 하하하 웃는 전 군민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보은여중, 충북대생들로부터 멘토링

학생들의 희망직업에 대한 흥미 자신감 제고

보은여자중학교(교장 신현자)는 1월 5~9일 충북대학교 학생들로부터 멘토링을 했다.

이는 교육지원청, 대학, 기초자치단체 등의 연계를 통해서 개별화된 학교의 인성지도 등을 지원함으로서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고 학생 개개인의 꿈과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교육활동이 이뤄졌다.

멘티 학생들은 교과, 특기·적성지도, 진로 및 학교생활 상담 활동 중에서 희망한 해당 분야에 따라 각 교실로 이동한다.

또한 대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진로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사회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변호 대학생에게는 사회봉사 및 교육실습 기회부여를 통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행복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재능나눔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모집대상
- 100시역사회봉사단 : 제능을 기지고 있는 단체 및 개인
- 베이비부머봉사단 : 55년~63년생의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및 개인

봉사활동 : 연중 (월 2회 이상 권장)

분야별 봉사활동

구 분	내 용
상담 · 정보봉사	법률 및 재무상담, 아동 · 청소년 상담 및 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기술 · 기능봉사	디자인, 멘토링교실, 캐리 · 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한수 등
교육 · 학습봉사	나능 · 재제교육, 계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지도 등 학습지도
운영 · 지원실사	제활동무의장육, 제가대상 행문문서, 행사, 프로그램 보조활사 등
노력 · 청정봉사	사회복지기관 시설 · 단체 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 · 의료봉사	무료진료, 초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문화 · 예술봉사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및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통 · 환경봉사	교통정리, 지양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지킴등 및 환경관련 캠페인 등

봉사혜택
- **재료비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에 의정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으로 로그인 후, My VMS에서 언제, 어디서나 봉사활동 실적 확인 및 봉사시간 출력 가능
- **봉사단 위촉장 수여**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의 지역사회봉사단 위촉장 수여
- **우수봉사단 표창**
  우수 봉사단체 지지체 및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추천
- **문화 · 예술공연 지원**
  우수 봉사단체 클래식, 연극, 뮤지컬 등 문화공연 무료 관람 지원
-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지원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남형우 코디네이터 ☎ 043) 234-0840

"퀴즈도 나눔도 으뜸"

청주 세광고 사장원이제한군
퀴즈프로그램 상금 일부 기부

청주 세광고등학교(교장 홍주필) 사장원이 제 한(2년)군이 퀴즈 프로그램에서 받은 상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연말으로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EBS장학퀴즈 제왕전에서 전주상산고, 광주한일고와 겨뤄 승리해 전국제왕이 등극하여 상금 1천400만원과 함께 부상으로 이탈리아 여행권을 획득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상금이 일부로 연탄은행에 연탄 4천장을 기꺼이고 직접 기부하며 참여했다. 서군과 이군은 소중한 경험으로 얻은 상금을 이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 연탄기부 활동에 동아했다 고 직접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연

탄을 직접 가정에 배달했는데 이 또한 많은 것을 알게 된 값진 경험이었다 고 말했다. 앞서 CJ브라마퀴즈 연장원전에서 장원을 차지한 이세훈(3년)군도 상금으로 구입한 연탄 2천장을 기부했다.

충북노인건강대축제 2015 성료

노인 대학생 등 1천여명 참석
가수 초청 공연 특강 등 진행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관장 심의보)은 5월 7일(목), 다음 세대와 지역민들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한 충북노인건강대축제 2015 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성황리에 종료 했다.

충북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르신과 대학생, 일반인 등 1,000여명이 함께 하여 긍정적인 노인상과 건강한 노인문화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을 이루었으며, 어린이와 대학생이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감동적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 이언구 충청북도의회 의장, 오충녀 충청대학교 총장, 충청대학교 직원생산 및 미용예술과의 학생생산비스, 제일스크레인업, 네일아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의 주택연금 홍보부스 , 제천시니어클럽의 어르신이 직접 만든 생산품 판시 및 판매 , 충북어르신의 삶을 찾 기 작품을 위한 충북노인종합상담센터 홍보부스 가 부터행사로 함께 진행되어 다양한 노인건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됐다.

4개 경기종목별 우승팀은 건강체조부문 풍船내피노인복지관, 실버댄스부문 충주시노인복지관, 전통무용부문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종합사물부문 별빛노인종합복지관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충북노인종합복지관 심의보 관장은 "올린 대회시간에이 어니라 오늘을 계기로 365일 어르신들이 건강할 수 있는 행복의 출발점이가 지역민이 노년의 건강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행사의 의의를 전달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및 지역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경연 참여한 지역 어르신들을 격려하였으며 특히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어르신의 건강이 충북의 건강이요, 어르신의 건강이 충북의 힘이니 청상 건강을 유지하시며 충북복도도 이에 다욱 힘을 것 이라며 참여한 어르신들의 사기를 북돋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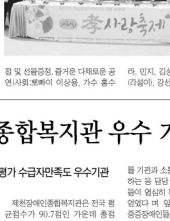
본 행사는 충북도내 어르신으로 구성된 22개 팀의 4개 종목에 대한 열띤 경연과 지난해 종목별 우승팀의 시연이 있었으며 초청공연으로 가수 가수 강성미 대한가수협회 청래구본회장이 참여 출연하여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어버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충북 효사랑 축제 열려
팔순잔치 난타 공연 진행

월드비전 음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진)과 월드비전 충북지부 후원어린이회장 이영희)는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월드비전 음성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주년과 월드비전 충북지부 후원어린이 회원 모두를 기념하여 5월 7일(목) 후원어린이회원 들이 직접 어르신1,000명을 모시고 어버이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축제에 어려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못한 지역의 독한 어르신 120분을 모시고 팔순잔치를 열어 식사대접 및 선물증정, 흡겨운 다채로운 공연(사회:보배이 이상용, 가수 홍수라, 빈지, 김상진, 코미디언 한심해(고씀이), 강선자 무용단, 이진주 한강민요 예술단, 나타 공연 팀 등)을 진행했으며, 아울러 지역내 어르신 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후원어린이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보답하는 프로즈트를 경해서 진행됐으로 보다.



•효사랑 축제란?
199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2015년)로 20회를 맞이한 효사랑 축제는 태진 지역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팔순잔치를 진행하지 못한 어르신을 에게 팔순잔치를 열어 드리고 선물증정, 즐거운 공연도 함께 전행하여 아울러 지역내 어르신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보답하는 프로즈트를 경해서 진행됐으로 보다.

충북도 청소년 사회복지전문기자
충정일보 김규철 기자

충정일보는 김규철 사회부장을 기획특무부장 겸 사회복지전문기자로 임명했다.

김 기자는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집중취재를 펼쳐왔으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이 되는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위해 매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8년부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전문교육을 마친 활동보조인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천지역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제공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센터장 이순희, 이하 보조기구센터)는 충북도내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구 선택 및 폰인증 사용을 위해 맞춤형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힘쓰고자 운영하고 있다.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시 청 각, 언어, 지 체 뇌 병변 장애인으로 노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여 가능한 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음성변자판독기용 등 각 언 어 장애인을 위 한 언어훈련기기와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총 7개 품목, 9개 기기이며 대여는 1년 단위로 진행된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에 관심 있거나 신청 및 상담은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음성상담(☎043-~265-~0401)을 통해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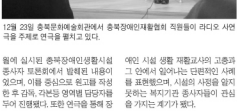
충북도장애인체활협회 연구세미나

지역 장애인복지 모습 그려내

충청북도장애인체육협회는 2014년 12월 22일 충북문화예술회관 1층 따비홀에서 연구 세미나를 실시했다. 충청북도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제작지원으로 충북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연구세미나는 2012년 Beer 세미나에 이은 심볼 세미나 두 번째로 실시됐다. 지역 내 장애인복지 현재의 모습을 연구으로 보여주며, 생활시설 복지 실태를 공유하며 나아갈 방향을 논의해보는 시간이었다.

연구 세미나의 주제와 내용은 12월 예이 시설 생활 재활교사의 고충과 그 안에 있어서 일어나는 다변적인 사례를 표현했으며, 시설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복지기관 종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


12월 23일 충북문화예술회관에서 충북장애인체활협회 직원들이 라디오 사연극을 주제로 연극을 펼치고 있다.

충주시 희망우체통 눈길

지역 복지사각지대 발굴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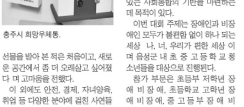
충주시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희망우체통 이 저액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배달하고 있다.

희망우체통은 충주시내 총 13곳에 설치 운영 중이며,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수시로 염사를 수거하고 대상자를 방문해 지역사회 자원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적극 해결하고 있다.

일례로, 수년넘게 거주하고 있는 한 노인이 갑자스런 강풍으로 지붕과 보일러가 손실되고 한기가 걸기에 곤로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염사 사연을 희망우체통에 넣어줬다.

사연을 접한 희망복지지원팀은 대한주택보증공사 연계로 500만원을 지원받아 지붕수리 뿐 아니라 노후시설 개보수까지 완료했고, 기초수급책정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다양한 지붕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은 노인은 삶아오셔서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 본 적은 처음이라고, 새로운 공간에서 좀 더 오래살고 싶어졌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충주시 희망우체통.

2015 장애인식개선 그리기대회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병세)에서는 제 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월 17일(금) 오후 1시 음성설심공원에서 2015 장애인식개선 그리기대회 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한자리에 모여 그리기 대회를 진행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의 큰 물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원경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대회 주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불편함 없이 하나 되는 세상 나 너, 우리가 편한 세상 이며 음성군 내 초 중 고 등학 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가 부문은 초등부 저학년 장애 비 장 애, 초등학교 고학년 장 애 비 장 애, 중 고 등부 장 애 비 장애 총 6가의 분야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선, 입선 등의 수상자에게는 상품과 상장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는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과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이 공동주관하며 오는 4월 15일까지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장애인복지관 (043~883~2900)으로 하면 된다.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우수 기관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 기관평가 수급자만족도 우수기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재원)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평가에서 전국 우수 등급 기관(수급자만족도 우수기관) 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결과는 활동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154개소를 대상으로 기관운영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서비스 제공과정 참좌 및 내용, 기관의 운영개선, 종합이건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도출했다.

진천군의 문의로 말하는 지능형 CCTV가 이래청호과학부 차세대 콘텐츠 등 반생정자원 공모사업에 선정 됐다.

진천군 듣고 말하는 CCTV

지능형 CCTV 시범사업 추진

진천군이 전국 최초로 귀 달린 CCTV에 이어 듣고 말하는 눈을 추진한다.

3월 9일 진천군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콘텐츠 융합성장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총 13억7천만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은 오는 5월 31일까지 20개소에 시범 설치를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기존의 귀 달린 CCTV를 업그레이드를 통고니어 말하는(입) CCTV로 기존 6m에서 사람 눈높이에 맞추어 1.7m로 이동하고 고정형 CCTV 카메라 갯체를 포함한다.

군은 지난 2013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설치한 귀 달린 CCTV로 지난해 큰 범죄예방 성과를 거두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층 업그레이드된 사업인 만큼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영중 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더 욱 강화하고 진천군이 CCTV와 관련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젠 가스사고 걱정 안해도 돼요"

충북 가스안전공사, 사회복지시설 타이머콕 보급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는 5월 20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백기종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사용이 취약한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가스안전 장치인 타이머 콕 100개, 과열방지 장치가 부착된 가스레인지 30대, 가스보일러 5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타이머 콕은 가스연소기의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중간밸브를 닫아 과열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안전기기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저소득층 32만여 가구에 대해 LPG호스를 도시가스처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했으며, 2008년부터 타이머콕 보급사업도 진행해 7년간 총 8만7000 가구 이상에 타이머콕 설치를 완료했다. 충북지역에도 금년에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타이머콕을 약 2000개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박기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충북지역의 가스사고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한 가스시설에 대해 다양한 사고예방 사업을 선제적으로 전개, 가스안전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국민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박기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오른쪽)이 타이머 콕 보급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교육 기부 '눈에 띄네'

작년 기부건수 2만8624건 전년보다 37% 증가

지난해 충북 도내에서 교육 기부에 나선 개인이나 단체의 참여인원이 전년보다 37.2% 늘었다.

6월 3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이나 공공기관, 단체, 대학 등에서 한 교육 기부 건수는 2만8624건이다.

이는 전년도 2만7776건에 비해 794회(2.7%)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영재별 교육 기부 실적은 봉사 1만3709건, 자원 1만2402건, 프로그램 2672건, 재능 1868건이다.

교육 기부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의 교육 기부 지원 MOU 체결에 앞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현재 1713곳과 교육 기부 MOU를 맺었다.

"어르신 농촌 밤길 사고 조심하세요"

청주농협 교통사고 예방 아쟁지팡이 1000개 전달

농협청주시지부(지부장 박연규)는 6일 회의실에서 청주지역 3개 경찰서에 농촌지주 노인들을 위한 야광지팡이 1000개(일반한쪽 상장용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촌 들녘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야광지팡이는 청주지역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배부될 예정이다.

또 이날 별도로 청주지역 11개 농협에서는 교통 주행시간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부착하는 야간반사경을 제작해 무료로 부착해 주기로 했다.

6월 6일 농협청주시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농촌주수 노인들을 위한 야광지팡이 1천개(일상한쪽 상장) 전달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다는 농업인이 많다 며 자동차 운전자들이 서행 운전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IBK 기업은행 사랑의 밥차 청주시내 누빈다

지역 어르신에 식사 무료 제공

IBK 기업은행이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기증한 사랑의 밥차 기념 3월부터 청주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광공원에서 창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IBK 기업은행 박춘흠 전무, 지역 어르신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밥차 기증식이 열렸다.

한 좋은 사랑의 밥차 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차량은 IBK 기업은행이 1억3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급식 차량이다.

IBK 기업은행은 무료로 차량을 기증한 이후 매년 운영비 4500만 원을 후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왼쪽) 정무위원장과 이승훈 청주시장이 IBK 기업은행의 사랑의 밥차 프로그램에 참석해 배식봉사를 펼치고 있다.

증한데 이어 메년 운영비 4500만 원을 후원하고 있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등에 따르면 무료급식차량과 연간 운영비로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무료급식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한 좋은 사랑의 밥차 는 도움 프 떠의 내부에 취사시설과 냉 장 급수설비를 갖추고 1회 최대 300명에 대한 배식이 가능하도록 특수 개조한 차량이다. 청 좋은 사랑의 밥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년에 걸쳐 매주 청주시내에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IBK 기업은행은 청 좋은 사랑의 밥차 를 전국 30곳에 무상으로 있 기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충북교육청 교육 기부 '눈에 띄네'

작년 기부건수 2만8624건 전년보다 37% 증가

지난해 충북 도내에서 교육 기부에 나선 개인이나 단체의 참여인원이 전년보다 37.2% 늘었다.

6월 3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이나 공공기관, 단체, 대학 등에서 한 교육 기부 건수는 2만8624건이다.

이는 전년도 2만7776건에 비해 794회(2.7%)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영역별 교육 기부 실적은 봉사 1만3709건, 자원 1만2402건, 프로그램 2672건, 재능 1868건이다.

교육 기부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의 교육 기부 지원 MOU 체결에 앞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현재 1713곳과 교육 기부 MOU를 맺었다.

'약속지킴이 바우' 탄생

세 명의 젊은 커리어우먼들이 모인 크림스쿼드는 봄화속의 천사처럼 소중을 들어주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커뮤니카 동료 속 가상의 공간이 아닌 실제 존재했으며 열매나 훌륭히 키는 상상에서 영감을 얻어 1년간의 디자인 작업 끝에 약속지킴이 바우 를 탄생시켰다.

현재 약속을 지키는 캐릭터 인형 바우 는 이루기 어려운 희망된 꿈이 아닌 소소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 인 의 간절히 바라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고 있다. 바우 캐릭터의 실현하는 확한 활동을 주변의 지원해 오고 있어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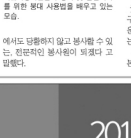
특히 바우의 이러한 활동이 인터넷 SNS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 하는 것은 고객가가치 상품으로써 상업성을 강조한 기존의 캐릭터 인형들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약속지킴이 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함과 봉사에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공감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적십자봉사원 응급처치법 교육 수강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회장 성영환)은 5월 17일(월)부터 6월 18일(토)까지 이틀 간 충북적십자사 2층 강의실에서 홈피닉구례의료 봉사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법 입문교육과정을 실시했다.

응급처치법 입문교육과정은 2일 (12시간 간 응급처치법의 원리, 심폐소생술(CPR), 기도폐쇄, 지혈과 상처 돌기의 사용, 상처 및 골절처치, 쇼 톡, 고 저 은 에 의한 손상, 갑자스런 질병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하정옥 봉사원은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언제든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응급처치법 교육을 받았으니 이를 자주 연습해서 이때만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적십자봉사원들이 상처 및 골절처치를 위한 붕대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모습.

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 는 전문적인 봉사원이 되겠다 고 말했다.

초등생 안전교육 애플리케이션 출시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KGC인삼공사와 초등학생 대상 안전교육 애플리케이션 '내 등을 지키는 소중한 약속 을 출시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애플리케이션은 기존 학교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아동이 쉽고 재미있게 안전수칙을 배우도록 게임을 추가했다.

애플리케이션 내용은 성 폭 력 유괴 예방교육으로 구성된 이번 이야기 ,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게임 형태의 퀴즈학습 , 안전이속 일기쓰기코너 에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소중한 약속 , 굿네이버스 , 청년장 으로 검색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애플 앱스토어에는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 본부장은 최근 아동 성범죄가 사회 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아동권리보호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며 굿네이버스는 기존 학교를 통해 진행한 안전교육을 애플리케이션 게임을 통해 아동들이 언제 어디서나 잘재적인 안전 위험상황을 인지할 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 굿네이버스가 주최하는 안전 약속 일기쓰기대회 는 부모와 자녀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아동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대회로 KGC인삼공사,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함께한다.

10월까지 애플리케이션과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한 학교를 통해 참여가능하며 우수작을 선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경찰청장상, 굿네이버스 회장상, 참관장상 등을 시상한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지난 2011년부터 KGC인삼공사와 함께 성폭력 예방인형극, 안전교육, 캠페인 등 아동건강 힘 키우기 사업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민은행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가정 청년층 취업준비 지원

KB국민은행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무드릴스타D.o.Dream Star! 사업 의 일환으로 취업 준비와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의 장애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무드릴스타 사업대상은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또는 본인이 장애인인 14 29세 청(소)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소득기준이 신청대상자 자격기준이다.

재활협회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중 청년층 장애인고용률이 주목하여, 졸업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학는 이점장애로 갇힌 청년 장애인계층의 취업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드릴 홈페이지(www.doordreamfund.com)에서 신청사항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계시판에 업로드 하면 된다.

충북긴급복지지원센터
1688-0012
생활에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 지원을 해드립니다.
복지서비스를 받기 원하시면 가까운 복지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
복지에 대해 궁금하시면도 전화하게 알려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 이웃 발견
1688-0012 전화
긴급 서비스 지원
*지원종류 지방역은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됩니다
충북긴급복지지원센터

지역	11개 기점 센터	연락처
청주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267-0866
충주	충주종합사회복지관	855-9000
제천	제천시희망나눔센터	642-3362
보은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544-5451
옥천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733-2500
영동	영동군자원봉사복지협의체	742-3700
증평	증평종합사회복지관	838-2875
진천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537-5004
괴산	괴산군사회복지협의회	834-1377
음성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873-1377
단양	단양군사회복지협의회	422-1700

2015년에도 당신의 안부를 지켜 드립니다!
사회복지전담인원은 전화상담 및 직영복지관을 통해 사회복지전담에서 받은 안전정보를 복지관 이용자를 중점하고, 대상발굴 및 체결방안을 선정가을 함께 모색합니다.
www.043whr.or.kr
충북사회복지안전지원센터
043)239-8903

"중복 복지사업 정비지침, 자치권 침해"

충북 사회복지 10개 단체, 복지계 대응 토론회서 주장
"650억원 규모 사업 축소 우려… 지역 복지 지켜내야"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중앙정부 사회보장정비 방안에 대한 충북 지역 복지계 대응 토론회 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이하 정비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 충북 사회복지단체들이 22일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 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등 충북지역 10개 시민복지단체는 이날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중앙정부가 지자체 복지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지방자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에 나선 이태수 꽃동네대 대학원장은 지방정부 스스로 주민들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 정책을 만드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 이라며 이번 조치는 복지국가의 기본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난폭한 행정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중단을 통보한 복지서비스나 수당, 보험료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이 646만명에 달한다 며 충북 11개 시 군 이 시행하는 총 650억원 규모, 96개 복지사업도 축소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주민은 공청회와 서명 작업을 통해 지역 복지사업을 지켜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북도와 도의회 관계자, 사회복지사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밝힌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복지사업 5천891개 중 중앙정부가 펼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1천496개(25.4%) 사업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연간 9천997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인천 광주시와 경기도 내 26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16일 이번 정비지침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 별도 신청 없이 확인 가능

복지부, 기초연금 시행령 개정
복지사각 해소위한 자동전환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매년 수급률과 소득 · 재산 ·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금액(선정기준액)이 오르는데 현재는 매번 신청을 해야지만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한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어르신은 선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도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동의 절차를 거쳐 금융정보를 조회해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3월 8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첫 지급된 지난해 7월 410만 명에서 8월 421만 명, 9월 429만 명으로 매월 10만 명 안팎으로 가파르게 오르다 10월부터는 1만 명 늘어나는 등 정체됐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87만 원에서 6만 원(6.9%) 인상한 93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증가폭이 다소 커졌지만 올 2월말 기준으로 436만 9,000명으로 소득 하위 70% 지급에는 20만 명이 모자란다.

신청을 하지 않은 어르신이 여전히 많은 탓도 있지만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상당했다. 지난해 신청 대비 탈락률은 30% 수준에 달했다.

도입 초기인 7~8월을 제외하고 통상 3~4만 명이 신청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달 1만 명 가까이 탈락한 셈이다. 작년 7월에는 신규 신청자가 45만 명에 달해 탈락자수도 10만 명을 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름에 따라 지난해 탈락한 어르신도 올해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별도로 또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며 필요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수급 여부를 알려주고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에 신청하지 않은 분은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거주불명등록자 9만 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체계를 구축해 더 많은 기초연금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촉구

충북사회복지 16개 직능단체

지난 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사회복지협의회어린이집연합회 등 16개 단체가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도내 16개 사회복지직능단체가 정부와 충북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어린이집연합회 등 16개 단체는 12월 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심각한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고 우려했다.

이들은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미루고, 지방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이 국가 책임 이라고 주장해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며 이로써 내년 1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이어 충북도교육청은 법령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지원의무가 있으며, 생애 초기 보육의 중요성 및 이번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보육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급히 편성하라 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충북도에도 보육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어 어린이들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 2016년도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안을 충북도교육청과 적극 협상해 해결하라 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충북아동복지협회,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충북재가노인복지협회, 충북지역자활센터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충북노인복지협회,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충북장애인복지시설협회, 충북장애인복지관협회, 충북노인복지관협회,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충북사회복지관협회, 충북다문화센터협의회, 충북시니어클럽협회 등이 참여했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교육청이 직접 지도감독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1년치인 459억원만 편성했다.

지자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824억원은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그러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다시 책정하라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중 297억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삭감된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육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가 1년 더 연장돼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해온 제도의 적용 시한이 지난달 28일 만료됨에 따라, 2016년 2월 29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에서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만2533건에서 2010년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1464건에 머물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고려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주에 전국 첫 노인전문교육원 건립 | 안림동 일대에 700억 투입

잠재된 노인의 인적자원을 개발해 국가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인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인교육의 산실인 노인전문교육원이 전국 최초로 충주에 건립된다.

조길형 충주시장과 이심 대한노인회장, 윤범로 충주시의장, 이종배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충주시청에서 건립추진위원회 구성과 노인전문교육원 부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노인전문교육원은 안림동 산 45-30번지 일대(8만3천838㎡) 국유지와 시유지에 건립되고 교육동과 숙소동, 식당 및 지원시설, 강당 및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게 되며 구체적인 것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결정된다.

이미 충주자활연수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다 올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출제센터도 추진하고 있어 노인전문교육원이 들어설 경우 명실공이 우리나라 사회복지교육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된다.

노인전문교육원은 조길형 시장이 지난해 12월 이심 회장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을 만나 적극적인 유치의견을 제시하면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고 지난 5일 민자 700억 원이 투입되는 노인전문교육원 건립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협약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충주시, 대한노인회, ㈜부영을 주축으로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2050년엔 노인 10명 중 4명 일해

734만명 경제활동 예상
노령화 노인 빈곤 탓

2050년에는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즉, 2050년에는 노인 10명 중 4명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최근 보고서 초저출산 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 서비스 (책임연구자 강은나 보사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노인고용률은 2010년 33.1%이었던 것이 2050년 40.8%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진은 1999~2014년 노인 고용률을 토대로 최근 수치에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를 줄여나가는 방식의 지수평활법 으로 미래의 노인 고용률을 예상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2010년 181만명이던 경제활동 참여 노인 수는 2030년 467만명, 2040년 640만명, 2050년 73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평균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전보다 길어진 노후생활 기간과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전망치(2011년)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2002년 77.2세였던 것이 2020년에는 82.5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은퇴 연령인 60세가 지난 후에도 평균 22.5세의 노년기가 남게되는 셈이다.

이처럼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은 늘어날 전망이지만 현재 경제활동 노인 인구의 고용의 질 은 낮은 편이다. 2012년 기준 경제활동 중인 노인의 60.6%가 임시직 종사자이며 33.2%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보고서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생계비 마련에 대한 필요 뿐 아니라 일의 즐거움, 일의 양과 시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며 경제적인 욕구와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종과 근로환경을 창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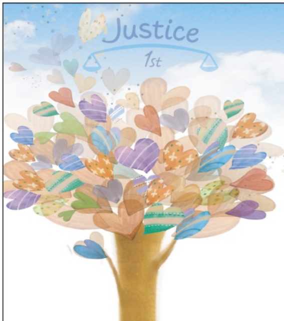
충북도 9988 행복지키미 전국 확대

충북도가 2014년부터 전국최초로 추진 중인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이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전국 공통 사업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5년도부터 기존 노인 일자리사업 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으로 변경하고, 노인의 다양한 사회활동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시행하면서, 전국형 사업 모델로 충북에서 전국최초 시행중인 행복지키미사업(노노케어 기본취지인 건강한 노인이 취약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안부확인, 생활상태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회활동 연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충북도에서는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의 전국형 총 35천개 일자리중 4,739자리(전국 전체 13.5%), 61억원의 국비를 확보 하는 등 전국 최고수준의 일자리와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5년에는 9988 행복지키미를 기존 2,000명 에서 4,739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은 2014년 7월 통합청주시 출범식후 열린 지역사회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복지분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확산 시킬 우수사례 라고 평가 받은바 있는 등 우리사회 노인 4苦(질병,고독,빈곤,무위) 등 노인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충청북도 대표 어르신 복지시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정부 3.0 우수사례 및 국민디자인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 사업 안내

법률홈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임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는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 · 친권 ·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은
강희석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lovingusm@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홈닥터

법무부 · 충청북도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올해 충북 부부 아너소사이어 탄생

진주산업 이태희 회장과 부인 남문숙씨
지난 1월 21일 지역 내 23·23번째로 가입

진주산업(주)이태희 회장과 부인 남문숙씨가 21일 충북모금회에 부부 아너소사이어 회원으로 가입했다.

1억원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의 회원이 2015년 새해 첫 번째로 두명이 한꺼번에 탄생했다.

주인공은 진주산업(주)이태희 회장과 부인 남문숙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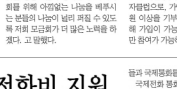
이태희 회장은 1월 21일에 11시에 충북모금회 회의실에서 5년간 1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정서 회원가입서를 결제 2번만을 기재하여 충북지역 아너소사이어의 21호로 가입했으며, 가입식에 참석하여 모금회를 방문한 이태희 회장과 부인 남문숙씨도 편장에서 아너소사이어의 21호로 기입하였으며 이에 첫 번째 아너소사이어이어가 충북지역 3번째 부부아너소사이어이가 탄생하게 게됐다.

이날 약정식을 통해 이태희 회장은 한국 아너소사이어의 729번째 회원으로, 남문숙씨는 729번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

이태희 회장은 어렵게 사업을 키워온 만큼 그동안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고 있었고 좀은 정성이지만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었다. 며

2015년을 시작하며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신년 회을으로 가입하게 되었다는 신년 회을으로 가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고, 고 가입소감을 밝혔다.

이영식 충북모금회 본부장은 가입에서도 지역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결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주으로 부부에 아너소사이어이 회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아낌없는 나눔을 베푸시는 분들이 나눔이 넓히 퍼질 수 있도록 저희 모금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다.



계시니라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결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주으로 부부에 아너소사이어이 회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아낌없는 나눔을 베푸시는 분들이 나눔이 넓히 퍼질 수 있도록 저희 모금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다.

아너소사이어이 는 사회지도층 으로 1억원 이상 기부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전 세계 14개국에 회원으로 모시게 되었으며 현재 한국에는 729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있다. 개인자격으로 만 원이 가입하게 된다.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유응모씨

내실 독립성 강화 노력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11월 27일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주꼼장산 유응모대표를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제9 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제9 1 대 회장선거가 2015년 11월 27일(금) 협의회 1층 복지자료실에서 실시 되었다.

이번 선거는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제9 1대 회장을 뽑는 의미 있는 선거로 대주꼼장산 유응모대표가 단독 후보로 입후보 하여 진행되었었는데, 총 50인 선거인 중 37명 투표, 37명 전원, 0명 반대로 유후보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제9 1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신임 유응모 회장은 청주시시 에어로센터협의회의 초대회장, 충북사회복지사협의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주꼼장산, 봉명지에어동센터 대표로 충북사회복지사협의 부회장,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충북보건의료대학교 겸임교수 등 충북의 사회복지계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응모 회장은 우리 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및 사업적

비를 통한 내실강화와 안정에 집중하고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파립성을 확보하여 청주시 사회복지의 허브기능 강화와 타 협의 및 복지기관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 등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단양군사회복지협 회장에 김종학씨

풍요로운 지역사회 조성

단양군 제7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김종학 前도 지역사회복지 협 전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며 풍요로운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 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05년 단양군청 공무원 멤버로 군 어린이 전담팀장, 군 감도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는 단양 아간학교에서 고등부 영어과목을 맡아 12년간 민학도들을 위해 봉사했다.

충북사회복지협 회장에 안종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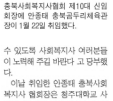
지난 1월 이 취임식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제9대 (옥춘회장직) 제1(대한중해회장) 회장 이 취임식이 1월 22일(목) 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 취임식에는 충청북도 이사종 지사, 충청북도의회 박종규 부의장, 충북교육청 김광호 부교육감, 청주시 이승훈 시장, 청주시의회 김기동 부의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前사무 본장을 내빈과 역대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및 사회복지관계자와 실버복지사와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임하는 제9대 유준회 회장은 이임사에서 임기동안 협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사회복지사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며 또 앞으로 충북사회복지협회가 더욱정 한 도약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 고 했다.

세로 취임하는 제10대 안종태 회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오늘 이 후보 3년 동안 강한 협의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사 개개인이 각자 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협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소통과 동행을 통해 묻제 해결 대안을 제시하고 조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원어를 조직사고원을 구축해 보고자 한다 며 참여를 통해 회원이 주인이 되는 협회,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협회, 소통과 동행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화십한 대변자가 되는 협회로 태동하는 새로운 에사만업기에 사회복지사 동지에버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가능으로 스장해 본다 고 포부를 밝혔다.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제10대 신임 회장에 안종태 충북음두의복유한회사 대표가 1월 22일 취임했다.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어 취임한 안종태 충북사회복지사 협회장은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하였으며, 현재 충북슈두더복유한 관장으로 근무 하고있으며, 지난해 11월 19일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의한 첫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 되었으며 앞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3년 2개월의 봉장직을 수행 하게 된다.

청주시 다문화가정 국제전화비 지원

청원모충동센터에 무료 인터넷전화기 설치

청주시가 청주시다문화가정 주민들의 국제전화 물시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어 서원구 모충동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정 주민들의 무료 인터넷전화기를 추가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달래줄 수 있는 소통의 공간 마련을 위해 시 시책으로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다문화가정 주민들은 무료로 고국과의 가족이나 친지들과 국제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제전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 라며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봉사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음성군 독거노인 안전 걱정 뚝

응급안전돌봄시스템 효과 커

음성군 지역에 설치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시스템이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지난해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시스템에 신 고 접수 된 2932건 중 421건이 실제 응급 상황이었다. 응급상황 중 응급출동은 6건이고 나머지 1062건은 가스센서가 작동이었다.

어르신들이 가스레지를 켜 놓은 것을 잊어버려 아차하면 큰 재해나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한 것이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시스템은 만 65세이상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 자 상 위 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돌봄시스템 을 설치해 비상시 소방서나 서비스센터이제로 자동신고 해주 해당 상황을 알려주는 사업이다.

또 독거노인 가구를 월1회 이상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화 재 가스 감지 와 응급조출활동감지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음성군은 독거노인응급안전 서비스사업으로 응급안전돌봄시스템을 2013년도에 50가구, 지난해 54가구에 설치했다. 올 연말까지는 44 가구를 추가한다.

"이웃에 희망주는 착한가게 함께해요"

청주 장련한내과 동참
충북 500호점 탄생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명식)는 청주시 서운구에 위치한 장련한내과가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500호점이 탄생했다고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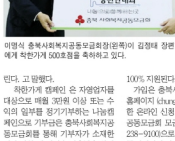
이날 500호점 기념식에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명식 회장을 비롯해 사랑의열매 노인복지 증진 위원장 이은희 위원장,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인성 모금위원장과 모금위원, 청주시나눔봉사단 등이 참석해 의 점 현판을 전달했다.

지난 2007년 청주에서 1호점이 탄생한 이래, 지난 2013년까지 232여 곳에 불과했던 충북 착한가게는 나눔봉사단의 한신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2014년 135곳, 2015년 133곳이 가입하는 바이하인 탈전과 성장을 이뤄내 500호점을 돌파하게 되었다.

500호점으로 가입한 김정태 장련한내과 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찌에 지인의 소개로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되었다. 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 고 말했다.

이명식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은 충북 착한가게가 500호점이 반생되기까지 경기불황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입해주신 충북의 모든 착한가게에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6400호, 7000호점이 계속 탄생해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결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주으로 부부에 아너소사이어이 회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아낌없는 나눔을 베푸시는 분들이 나눔이 넓히 퍼질 수 있도록 저희 모금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다.



이명식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왼쪽)이 김정태 장련한내과 원장(오른쪽)에게 착한가게 500호점을 축하하고 있다.

단양군 주민복지 스마트하게 알린다

내년부터 원스톱 서비스
SNS 등 통해 정보 등 제공

충북 단양군이 새해부터 복지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복지정보 알림이 를 본격 운영한다.

복지정보 알림이는 복지이장, 복지위원, 어르신복지지킴이, 읍면협의체 위원, 다음별로 복지 읍·니·위원 등 복지사각 역할 보여자 등 이별 2명 이상을 위촉해 연중 운영한다.

이들은 읍 면 복지담당자로부터 각종 복지정보를 네이버 밴드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속하게를 통해 전달 받으면 해당 가까지 수혜자에게 서 비스 제공 및 신청을 지원해준다.

군은 지난해 시범운영기간 동안 복지알림이 460명을 위촉해 정보제공 83회, 서비스연계 실적 463건, 교육실적 12회, 홍보실적 37회 등의 성과를 거두며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단양군이 제9회 정부 및 시·도지사 합동 업무보고 회에 및 단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복지알림이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을 마련 힘썼다.

군은 이 복지정보 알림이를 통해 복지이장, 9988 행복지킴이 등 유사활동 정비와 동일 활동과제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역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복되는 업무 및 복지 자원의 부분을 최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화살롱이 청주실버 행복 책임질게요"

청주가경노인복지관서
기증물품 현판식 가져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정은경)은 6월 22일(월) 시니어문화살롱 기증물품 현판식을 갖고, 운영을 위한 발판을 준비하였다.

시니어문화살롱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그 중 미니카페 및 바리스타 교육 운영을 위한 물품을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재단(L.C.I.F)기금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총회지구 구총재 운영김 회원들이 모금한 금액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다.

현판식에 참여한 이프신은 노인들을 위한 정말로 감사의 생겨서 주다. 며 앞으로 문화살롱이 오픈하면 꼭 찾아주겠다고 싶다 고 말했다.

청은경 관장은 지역사회 어르신의 소통의 공간이 될 시니어문화살롱에 적극참여를 할 수 있게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라며 앞으로도 문화의 정보전반 다중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총회지구는 해외봉사활동 및 봉사물품전달, 봉우이웃돕기 성금 및 물품 전달, 무료검사시장 및 의료봉사, 사랑의 집수리봉사 등 폭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복 / 지 / 만 / 평

단추

이창신 www.bokmani.com